



12·19 재·보선 현장을 가다

<2> 장흥 군수

현장과 시각

해남 화원농협의 지혜



이종태  
경제부 차장

울김장시장이 요즘 치고 있다. 배추값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김장을 앞둔 주부들은 주안일부터 톱긴다. '일년 농사'라는 김장을 두고, 배추값이 얼마간 올랐다고 해서 가게살림이 더 어려워질지 모르니 걱정부터 하는 게 우리네 주부들의 인자성이다.

농촌경제연구원원이 최근 '김장철 채소가격과 김장 수요 전망'을 조사한 결과 올해 김장비용(배추 20포기)을 소매가격 기준 15만7천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김장비용보다 14.4%(1만9천원) 오른 가격이다. 이런 탓에 김장을 하느니 사 먹자는 주부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 연구원의 설문 조사에서도 '직접 담가 먹겠다'는 의견은 지난해보다 2.5%포인트 낮아진 반면 '사먹겠다'는 의견은 2.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수입배추가 유난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도 요즘 김장철의 한 풍속도다. 중국산 배추는 울 10월 한달동안 지난해 동기대비 무려 6.5배나 수입됐다.

울 김장시장이 요즘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부진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때문이다. 배추가 풍년이면 값이 떨어져 농민은 울상이고, 작황이 부진하면 값이 폭등해 소비자들이 고달플 수밖에 없다.

이같은 약조건 속에서도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배추값의 '번덕'을 이겨낸 농협이 있어 소개한다. 해남 화원농협은 지난 2000년 40여 배추 재배농가와 처음 납품계약을 맺으면서, 농가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농협의 판매사업을 이용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계약 초기에는 농가의 불만이 하늘을 찔렀다. 그러나 농협은 성실한 계약이행만이 농가와 농협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논리를 고집스럽게 펼쳐나갔다.

계약재배 효과는 지난해부터 나타났다. 지난해 김장배추가 과잉생산되면서 1kg당 80~90원으로 폭락했으나, 화원농협은 150원에 사들여 농가들에게 실익을 줬다. 또 올해는 김장배추를 1kg당 120원에 계약재배했으나 배추가격이 폭등하자, 220원으로 단가를 인상해줬다.

이같은 시스템을 통해 화원농협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한편 저렴한 가격에 김치를 판매해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을 준 것이다.

해남배추 뿐만이 아니다. 최근 수년동안 전국 소비자들이 주목한 12대 브랜드쌀에 선정된 5개 전남쌀도 하나같이 철저한 계약재배가 빛어낸 결과물이다.

중자선택에서부터 재배, 수확, 가공과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이뤄지는 계약재배는 농산물 가격지지와 함께 소비자들의 신뢰를 이끌어내는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다. FTA 시대를 대비하는 농가나 농협 모두 계약재배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jtlee@kwangju.co.kr

팽팽한 3각 구도... '낙후 탈출' 최대 화두

지난 7월 말 부인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 김인규 전 군수의 당선이 무효 처리되면서 다른 곳에 비해 일찌감치 재선거 대상에 포함돼 열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후보간 공방전 또한 치열해 주민들도 대선 보다는 군수 선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친환경농업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면서도 산업기반이 열악해 '낙후 탈출'이 최대 화두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0%에 육박하는 초고령화 추세 속에 후보들은 복지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며 노년층 표심잡기 경합을 벌이고 있다. 향촌사회 특성상 혈연에 기반을 둔 씨족간 물밑경쟁도 관건이다.

행정가 출신인 대통합민주신당 이명흠(58) 후보와 민주당 백도선(62) 후보, 정치인인 무소속 김 성(48) 후보간 팽팽한 3각 대결구도다. 이들은 한결같이 기업 투자유치와 산업기반 확충으로 군민소득을 끌어올리는 '경제군수'가 되겠다고 표방하기에 분주하다.

대통합민주신당 이명흠 후보는 9급 공무원에서 장흥부군수에 이르기까지 지방행정조직을 두루 섭렵한 경험을 내세워 자치단체장 역할에 적임자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방산단 조성과 친환경기업유치로 지역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



<이명흠 후보>



<백도선 후보>



<김 성 후보>

노년층 표심 잡기... 씨족간 물밑경합도

이명흠 35년간 공직 생활... '경제 군수' 자임  
백도선 고시 출신 "준비된 군수" 인물 강조  
김 성 '외길 정치인' 탄탄한 조직력 큰 힘

키겠다는 비전 아래 민선 4기들어 추진해온 10대 문화콘텐츠 육성과 정남진 토요장터 내 8도 음식명가, 국립문학박물관 건립 등 관광·문화진흥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잘 사는 장흥, 문화 장흥'을 모토로 삼고 있는 이 후보는 "35년간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경제 관련 부서에서 일해온 경험을 살려 1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친환경 농공병진(農工併進) 정책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같은 당에서 출마를 준비해왔던 김창남 전남도의회 부의장의 지지를 바탕으로 김 전 군수의 조직을 상당부분 흡수, 밀바다 표심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 백도선 후보는 '준비된 군수'를 적극 설파하고 있다. 행정고시 출

장흥군수 후보

정당	이름	나이	현직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납세실적	전과
신당	이명흠	58	정당인	전남대 경제학과	장흥부군수	4억 9천만원	소집면제	1688만원	없음
민주당	백도선	62	정당인	고려대 경제학과	장흥군수	3억 7천만원	군필	889만원	없음
무소속	김 성	48	조선대 비전임교수	조선대 행정학박사	전남도의원	1억 7천만원	소집면제	42만원	1건

\* 선관위 신고 기준, 후보 3명 모두 재산세액은 없음.

신으로서 전남도청 간부직과 무안·장성 부군수, 장흥군수를 거치면서 닦아온 능력과 자질, 전문성을 자처행정에 접목시켜 참다운 지방자치가 무엇인가를 선보이겠다는 포부다. 장흥의 미래를 열어줄 농·수·축산업 육성과 노인·여성·장애우·다문화가정·보육을 위한 종합복지타운 건설, 사통팔달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장흥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 소득 창출을 꾀하고 곳곳에 산재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산업 진흥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각오다. 백 후보는 "당내 공천 과정에서 '인물과 능력'이 이미 검증됐다"며 "강진, 보성 등 중남부권 지자체들과 연계한 벨트 조성으로 새로운 발전축을 형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원유세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과 노년층 표심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때 민주당 후보

로 출마해 2천여표차로 석패한 무소속 김 성 후보는 국회의원 비서관과 2선 도의원 등 정치경험을 살려 '발상의 전환'과 '강한 추진력'으로 참패된 장흥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각오다. 태양광과 바이오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단지 조성을 비롯 한우박람회 개최 및 한우공원 조성, 생태체험마을 조성, 종합웰빙레저타운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문화예술과 관광의 접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행정개혁, 국제교류 확대, 국제사업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민존경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건 김 후보는 "20년동안 한 길 정치인으로 민주당을 지켜왔다. 정치인만이 지역살림을 잘 꾸려나갈 수 있다"며 차별화를 꾀했다. 도의원을 포함 세 차례 선거과정에서 다져놓은 탄탄한 조직이 표방같이 큰 힘이 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정흥=김용기기자 kykim@kwangju.co.kr

이석형 함평군수 "총선 불출마"

3선 단체장으로 그동안 총선 출마설이 나돌았던 이석형 함평군수가 내년 4월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군수는 공직자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10일 성명을 내고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총선에 나서지 않고 함평의 밝은 미래를 여는 데 더 많은 발판움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역의 명인이 걸린 2008 엑스포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앞두고 개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자리를 쫓기보다는 함평의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군민 분열을 막고 일기를 마칠 때까지 군정에 전념해 지방자치의 모범 도시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총선 출마설이 제기됐던 전갑길 광주 광산구청장과 김종식 안도군수 등도 총선 출마의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이명박-이회창 지지자 몸싸움 10일 오후 서울 중로5가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보수우파 대선 후보 단일화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기자회견 도중 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후 무리한 예산요구 안돼"

장병완 장관 "패배한 당도 책임감 갖고 연내 처리해야"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은 예산과 관련해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예산안 국회 처리와 관련해 이렇게 밝히고 "대선에서 패배한 당도 책임감을 갖고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헌법상 예산안은 새해 개시 30일전인 12월2일까지 통과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정상적인 것은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확립돼야 한다"면서 "과거 잘못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했다. 장 장관은 또 "한나라당이 대선후에 당선자의 의견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우려가 된다"면서 "그동안 예산안은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준예산은 국회 해산이나 내각 총사퇴 등의 비상시에 생명연장의 방편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국가에 엄청난 공백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지난 정부에서 민영화 많이 시행됐고 현 정부에서는 민영화 별도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전하고 "과거 민영화는 제조업 중심이었고 현재 공기업들은 자연독점적인 네트워크 산업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내 판매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원천외산 물리이탈 할당제! 인기 하터에도 별음이 있습니다.

원천외산 프라이업 할당제! 학력 조절과 등거리 입세 난방까지

고효율의 특이 기술력! 냉난, 소음 저감 장치 채택

무등산업

10대(02)-7095-911-601-7701

**日食 미도 확장개업**

조용한 심플해추안 고객님께 있어 감사드립니다. 매일15분정도를 맞이하여 실익 미도가 새로운 풍채를, 풍채있는 시골로23층 확장개업하여 피었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심심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연세 20세, 50세 가능 ●통시주차 50대 가능

T. 02-234-0001, 228-0106